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5년 만에 정권교체

“공정·상식 바로 세워 새로운 나라 만들 것”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있다.

뉴스스

직선제 개헌 후 첫 '0선-검사 출신' 대통령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야당과의 협치' 강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미관계 변화 예고
“국민 받들고 의회와 소통하며 협치하겠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국립현대미술관 참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또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48.56%(1639만4815표)의 득표율로 47.83%(1614만7738표)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었다. 득표 차는 0.73%포인트, 24만 7077표로 1, 2위 간 역대 최소격차 기록을 세운 유례 없는 박빙 선거였다.

이번 대선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특히 윤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경력이 없는 '0선 대통령'이 됐다. 또 첫 '검

사 출신 대통령'에도 이름을 올렸다.

1960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난 윤 당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9수'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대구지방법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6년 간 공직 생활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대미술관 참배로 당선인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현충원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변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0분 동안 서초동 자택에서 이뤄졌다. 당초 11일에 통화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눈치를 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도 받았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로서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당선인사에서 “(국민이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자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전인 5월 9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약 10년 만이다. 인수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프로야구 시범경기 12일 개막



코로나19 여파로 스프링캠프 기간 중 연습경기가 줄어든 탓에 KBO리그 10개 구단은 12일 개막하는 올해 시범경기를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10일 고척돔에서 진행된 키움의 라이브 배팅 모습.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광현·양현종·푸이그... MLB 스타들의 실력은?

코로나19 여파 작년처럼 전경기 무관중 진행
반쪽 스프링캠프 속 실전감각 올리기 총력전
해외파 귀환 관심...내달 2일 정규시즌 개막

어느 해보다 중요한 모의고사다.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다.

12일부터 팀당 16경기씩 치르는 2022년 KBO리그 시범경기가 개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시범경기는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모든 팀이 가장 큰 공을 들이는 '훈련'이자, '실전'이다. 10개 구단은 스프링캠프부터 구상한 전력을 시범경기를 통해 확인하고, 선수 개개인의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최대한 집중한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시범경기는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강조된다. 10개 구단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프링캠프를 '미완'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대개 1차 캠프 후 2차 캠프에선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각을 점검한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의 팀이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했다. 2차 캠프 도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전 구단에서 쏟아지면서 연습경기 취소가 잦았다.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벌써 격리에 들어간 인원이 상당하다. 현 상황에서 시범경기 초반 일정을 원만하게 소화하지 못할 팀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팀은 시범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실전감각을 가다듬겠다는 의지다.

시범경기가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해 정규시즌 개막일은 4월 2일이다. 시범경기는 이날 29일 끝난다. 정규시즌을 순탄하게 출발하려면 개막 직전까지 이어질 시범경기에서 실전감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오랜만에 KBO리그로 돌아온 슈퍼스타들의 전력질주 역시 올해 시범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SSG 랜더스에 합류한 김광현, KIA 타이거즈로 복귀한 양현종이 시범경기를 통해 건재를 과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타자 야시엘 푸이그도 야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푸이그는 5일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에서 장타를 신고하며 순조롭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이저리그 스타 출신인 그는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꼭 상대하고 싶은 선수 중 한 명이다. 시범경기 기간 국내 선수들과 맞대결에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안방극장 로맨스 주역으로 떠오른 '국민 첫사랑' 김태리의 매력 ▶ 12면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